

핵심소재사업단 선정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의 초석이 될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7.27(화)~7.30(금)간 지식경제부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잠정 선정하였다.

금번 평가위원회는 지난 6.1일 사업공고 이후 접수된 14개 컨소시엄 366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 10개 컨소시엄에서 2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선정되었다.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선정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8.2~8.13)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금번 평가시에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주도형 사업임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중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미흡한 기관 등은 축소·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대학 및 연구소의 역할을 통합·조정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된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금번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선정평가 결과 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00여개로 전체 참여기관 중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을 위해 동일과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합시 평가결과, 동등수준일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부여하였다.

정부 R&D 자금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유도하였다. WPM 사업공고시에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단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더불어 대기업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사업 참여 사례로서 이차전지의 경우 삼성SDI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총 19개 참여기업 중 15개의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상호협력력을 추진하였다.

바이오메디컬의 경우 중소기업인 아미노로직스가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기업의 100%가 중소기업이다. LED 사파이어의 경우 중소기업인 사파이어테크놀로지사가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참여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참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중심의 특허실시권 부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글로벌 소재 T/F' 를 운영하여 WPM 사업에 참여하는 10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특히 전용실시권은 중소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참여기업 중심으로 협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단 선정 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을 통해 10대 소재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경제성 및 전략성과 함께 공정성 및 보안유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되었다.

번호	소재명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1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포스코, 오스템, 인포비온, 르노삼성자동차, 벡터필드코리아, 비즈오션, 티알엠, 코스텍, 지온컨설팅, 노루코일코팅, 지엠대우오토애편테크놀로지,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포스코, 노루코일코팅, 솔루션랩, 신영, KC케미칼, 지엠대우오토애편테크놀로지, 오스템, 성우하이텍, 엠에스오토텍, 동양강철, 센트랄, 지월드-마그빌, 동남정밀, 명화공업, 성우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
3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LG화학, 효성, 바이오니아, 파낙시아엠, 삼성전자, 제일모직, 나노기술, 현대자동차, 효성, 신한세라믹, 일광, LG이노텍, 나노솔루션, 에이테크솔루션, 신아티앤씨, 만도, 제이오, 디에이치홀딩스, 한주금속, 현대모비스, 후성정공, 크레진
4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코오롱FM, 애경유화, 에어레인, 현대위아, 효성, 삼원엔지니어링, 웰크론, 삼성정밀화학, 효성예바라, 제일모직, 삼성전자, 한국정수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자동차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제일모직, 대림화학, 폴리사이언텍,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잉크테크, 나노신소재, 엔애플, 에폰, LG화학, 아이컴포넌트, LG디스플레이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	삼성SDI, 엘엔에프신소재, 제이오, SK에너지, 에너테크인터내셔널, 테크노세미켄, 한국유미코아, 디엔텍, 코감, 한화테크엠, Saft, 삼성전자, 애경유화, SB리모티브, 엠케이전자, 예일전자, 아이이지, 한국엠테크, 포스코켐텍
7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로직스, 한켄, 아미노룩스, 코리아본뱅크, 히스토시스템, 덴티움, 위노바, 아이진, 케이피씨, 코렌텍, 오스템임플란트
8	초고순도 SiC 소재	LG이노텍, SKC솔믹스, 금강력츠, 이노씨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석경에이티, 포스코, 쌍용머티리얼, 주성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사파이어테크놀로지, 크리스탈온, 서울반도체,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스플레이, KCC, 케이씨, 크리스텍
10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효성, 데스코, 신기인터모빌, 알켄즈, 브이엠테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현대자동차, 거성산업자재, 빅센타이어, 삼성교역, 한국타이어, 알티아이엔지니어링, 태광산업가스

현장실태조사로 신청기업의 인프라 보유 현황 분석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평가지표로 사업화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기여도, 기업 투자계획 및 사업화 전략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였다. 평가점수 비율을 기술성, 경제성·전략성에 각 50%로 하였다. 해외 수요기업 포함시와 사업화 추진을 위해 설비투자 방안 및 사업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시 각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하였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자동추천시스템을 활용하되, 기술성, 경제성·전략성 및 특허 분야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검증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평가방식은 기술성, 경제성 및 전략성 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보안유지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6개 비경합과제는 당일 평가 완료하였다. 4개 경합과제는 공정성 및 보안유지를 위해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장소를 별도 선정하여 1박2일간 심층 평가하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에서는 기대효과로 'WPM 사업'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대 핵심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핵심소재 신시장 창출,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10개 사업단은 향후 201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정부 R&D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기업이 5.3조원의 사업화 투자를 통해, 3,200억달러 규모의 신시장에서 325억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WPM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정으로 지식경제부는 '10.8월 중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10.8월중)할 예정이다.

'심의·조정위원회'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간 역할분담, 사업비 지원규모 등을 검토·조정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10개 사업단이 상호 경쟁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 마일스톤 관리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한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의조정위원회의 최종 확정 이후, 연구비 협약('10.8월말)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WPM 사업단 출범식('10년 9월말)에서는 사업단 지정증 수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개발 참여 대·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사업단 출범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 상생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